



“홈플러스와 함께 달달한 화이트데이 보내세요”
홈플러스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17일까지 ‘화이트데이 기획전’을 진행한다. 400여 종의 각종 제과류 상품을 모아 할인 판매한다. 또 행사 상품을 2만4000원 이상 구매 시 플레이모빌 2개를 증정한다. 사진제공 |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신제주점’ 오픈

롯데하이마트가 최근 제주 노형동에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인 ‘메가스토어 신제주점’을 열었다. 면적 1950㎡ 4층 규모다. 1, 2층은 시즌 이슈 상품 및 디지털가전 전문관으로, 3, 4층은 주방·생활 이슈 가전과 프리미엄 대형 가전으로 꾸몄다. 문충 롯데하이마트 MD전략부장은 “올해 메가스토어 출점을 이어가 다양한 지역 고객에게 프리미엄 가전 및 이슈 상품 체험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롯데홈쇼핑 16일부터 레스토랑 간편식 판매

롯데홈쇼핑이 16일 오후 5시40분 레스토랑 간편식(RMR) 판매 프로그램 ‘테이스티’를 론칭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 기회가 줄어들면서 유명 레스토랑의 음식을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레스토랑 간편식(RMR) 수요가 확산된 것을 겨냥했다. 오픈 레스토랑으로 스튜디오를 꾸몄다. 쇼호스트가 손님으로 출연하고 셰프들이 직접 조리하는 콘셉트다. 첫 방송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출연해 황성축협한우의 고급 원육을 사용한 ‘한우 스테이크 세트’를 선보인다.

삼성물산 빈폴액세서리 ‘구름’ 라인 출시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액세서리가 2021년 봄·여름 시즌 신상품 ‘구름’ 라인(사진)을 출시했다. 구름처럼 가볍다는 의미로 명명됐다. 남성과 여성 구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젠더리스 상품이다. 경량성과 스타일을 고루 갖춘 게 특징이다. 가죽 소재 토트백 무게는 700g, 나일론 소재 토트백은 400g 수준으로 일반 상품 대비 10% 정도 가볍다. 백팩은 유연한 곡선 라인과 불리감 있는 형태로 캐주얼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동시에 담았다. 이상우 빈폴액세서리 팀장은 “실용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멋과 여유를 잃지 않는 2030 MZ세대를 겨냥했다”고 했다.

신세계,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주소주’...4년여 만에 청산

씩 진출하는 수제맥주, 야구단과 윈윈?

소주시장 무리한 진출에 큰 손실 야구단 업고 주류시장 다시 도전 정 부회장 공격경영 비판 시선도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 이마트가 제주소주를 청산하기로 한 가운데, ‘과감하게 시작하고 안 되면 접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공격적 경영이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이를 통해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노브랜드 등 성공한 사례도 있다. 반면 일본 잡화점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빼에로쇼핑(2018~2020), 미국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과 협업한 웰스&뷰티 스토어 부츠(2017~2020), 가정간편식 전문점 PK피코크(2018~2020), 제주소주(2016~2021)에 이르기까지 아픈 흑역사도 즐비하다.

●**제주소주, 패착은?**

이마트는 2016년 12월 제주 향토기업인 제주소주를 190억 원에 인수했다.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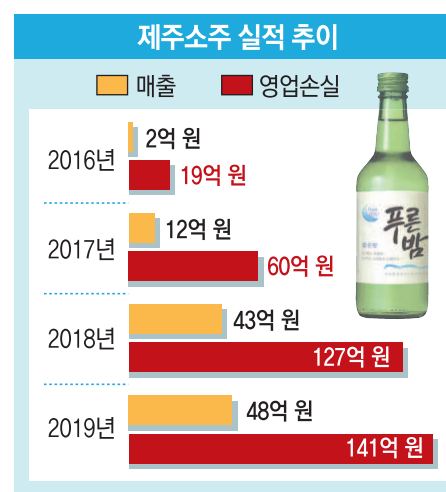
주 ‘푸른밤’을 내세워 자사 대형마트와 편의점 채널을 활용해 가정용 시장의 영업망을 넓혔지만 이것만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하이트진로 ‘참이슬’과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이 장악하고 있는 식당과 바 등 유흥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

제주소주의 영업손실은 2016년 19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60억 원, 2018년 127억 원, 2019년 141억 원으로 불었다. 적자가 커지자 이마트는 2016년부터 총 6회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총 67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청산에 이르렀다. 제주소주는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직원들은 이마트와 주류 도매 계열사인 신세계L&B로 옮길 예정이다.

●**소주 대신 수제맥주, 잘 될까?**

신세계그룹은 소주 사업 대신 신세계 L&B를 주축으로 한 수제맥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 맥주 이름은 ‘렛츠 프레쉬 투데이’로 해외 주문상장표부착생산(OEM)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맥주 사업 진출은 최근 인수한 프로야구단 SSG랜더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



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맥주 시장 역시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가 치열한 경쟁 속에 견제하고 있고, 최근에는 수제맥주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도 부담이다. 특히 주류 시장은 기존 익숙한 제품을 꾸준히 소비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제주소주의 절차를 다시 밟는 것 아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SSG 랜더스는 성공할까?**

문제는 잦은 실패로 인해 정 부회장의 공격적 경영의 결과물이 성공보다 실패가 부각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고객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에 무리하게 진출해 사업 손실만 키운다는 이미지가 있다. 일각에서 “개인 인스타만 성공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인수한 프로야구단 SSG랜더스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KBO리그 관중 수입이 2019년 860억 원에서 2020년 45억 원으로 하락해 프로야구단 재정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야구단 인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매년 수백억 원을 야구단 운영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SG랜더스 홈 구장을 신세계의 노하우를 접목한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진화시켜 야구 보는 재미를 배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유로운 관중 입장이 가능할 때 얘기인 만큼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특히 야구단은 일반 사업과 달리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팔도비빔면 새 모델 정우성, 농심 배홍동 비빔면 새 모델 유재석, 오뚜기 진비빔면 모델 백종원(왼쪽부터). 사진제공 | 팔도·농심·오뚜기

정우성 vs 유재석 vs 백종원...화끈한 비빔면 대전

비빔면 시장 선점을 위한 라면업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비빔면 시장 규모는 2014년 672억 원에서 2018년 1318억 원으로 배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낳은 집합족의 영향으로 1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기존 여름 시즌 한철 장사하는 계절면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여파 속 겨울에도 수요가 증

가하는 사계절 별미로 자리잡는 것도 한몫했다.

업체별 점유율은 팔도비빔면이 60%에 육박하고 농심과 오뚜기 등이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왕좌를 지키고 있는 팔도비빔면은 배우 정우성을 모델로 발탁해 1위 수성에 나섰다. 회사 측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 온 정우성의 이미지가 꾸준한 품질혁신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비빔면과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팔도비빔면 8g

+’를 1200만 개 한정판으로 내놓았다. 가격 인상 없이 액상비빔면 8g을 추가로 별첨한 게 특징이다.

농심은 신제품 ‘배홍동 비빔면’으로 응수했다. 배홍동은 배, 홍고추, 동치미를 갈아 숙성시켜 만든 색다른 비빔면이 특징으로, 3개 재료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 전국의 비빔국수 맛집을 찾아다니며 최상의 비빔장을 개발했다는 게 농심 측 설명이다. 브랜드 모델은 방송인 유재석을 발탁했다. 부캐(서브 캐릭터) 전문 유재석에게 ‘비

빔면 장인 배홍동 유씨’라는 새 캐릭터를 입혔다.

오뚜기는 지난해 출시해 5000만 개 이상 판매고를 올린 진비빔면의 인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태양초의 매운맛에 사과와 타마린드 양념소스를 더해 새콤하면서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맛이 특징이다. 올해도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모델로 내세워 비빔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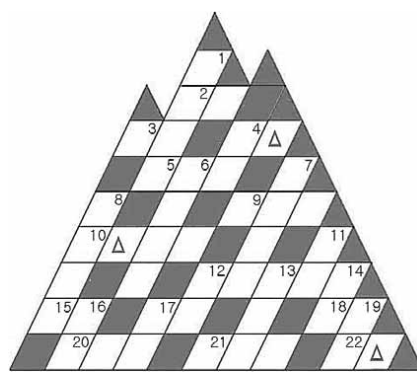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2			9					4
		1	8		3	6		
	6		2		4		1	
		8		2		4		
9			4		7			5
		7		3		2		
	8		3		9		5	
		9	5		2	8		
3				1				6

■ **스도쿠정답**

9	2	6	8	1	7	4	9	5
8	7	8	2	9	5	6	1	3
1	5	2	6	9	8	3	4	7
8	9	2	9	8	6	7	1	3
9	8	1	7	9	4	2	6	5
2	6	1	7	2	8	5	9	3
6	1	5	7	2	9	8	3	4
2	2	9	6	9	8	1	6	7
7	8	8	1	6	9	5	2	3

■ **날말문제**



■ **가로열쇠**

02. 고향을 그리워함. 03. 겨울을 세우고 그 아래에 화장품을 넣는 가구. 04. 비가 올 때 손에 들고 머리 위에 받쳐서 비를 가리는 우비. 05.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길게 뻗은 선. 09. 물

을 담아 따르게 만든 그릇. 10. 행동이 제멋대로임. 12.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 15. 짧게 내는 소리. 17.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18.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어 봄. 20.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 21.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뿜어거나 걸어 두는 큰 글씨로 쓴 글. 22. 장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

■ **세로열쇠**

01.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 04. 어떤 일에 앞서서. 06. 남이 잠잘 때 요란스럽게 굴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함. 07. 매우 위급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말. 08. 갈로 무엇을 대변에

■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모두 풀 다음 삼칸을 이어 놓으면 산 여러분이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